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42)

염병이대화(歛兵以待和)

군사를 거두면서 화의를 기다린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툴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개중에는 자기의 뜻 이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자연스레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방어를 하게 되고 자력으로 안 되면 국가에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때에 정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가부를 판결해 준다. 그래서 나라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간의 분쟁이 벌어지게 되고 잘 타협이 되지 않으면 끝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긴다. 왜냐하면 각국의 분쟁을 권리로 가지고 해결하고 판결해줄 국제기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은 각자 도생(圖生)하려고 외교(外交)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와 대화하며 타협을 하고 있다. 이때에 겉보기에는 말이나 논리만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력이든 경제력이든 힘을 뒷받침하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그래서 외교력은 군사력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마침 내가 역주작업을 하고 있는 속자 치통감에는 송이 금과 화의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금(金)은 지금의 함경도에서 흑룡강 지역에 있던 작은 여진 족이 세운 왕조이다. 금(金)은 건국하고 불과 10년이 못된 시점에 자기들이 조공을 보내던 요(遼)를 멸망시켰고, 내친 김에 송(宋)으로 내려와서 송의 도읍인 개봉(開封)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급기야 송의 황제인 휘종과 흠종 부자는 금(金)에 포로로 잡혀갔다.

겨우 금(金)에 포로가 되는 것을 면한 휘종의 아들 강왕(康王) 조구(趙構)는 송의 황제로 등극하여 새로이 남송(南宋)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남송의 고종(高宗)이다. 하여간 조구는 황제에 오르긴 했어도 힘이 없는지라 양주(揚州)까지 도망해야 했다. 그동안 송의 조정에서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금(金)을 막으려고 많은 것을 금(金)에 주었다. 개봉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금은 보화는 다 거두어 금(金)에 주었고, 또 영토도 양하(兩河) 지역까지 금(金)에 내주었다. 또 해마다 막대한 양의 금품을 세폐(廢幣)로 금(金)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 더 나아가서 송(宋)은 자기들이 무력으로 금(金)에 대항하게 되면 금(金)이 화가나서 화의(和議)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하여 되도록 군사 활동도 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나라를 몽땅 들어서 주는 것 말고는 송이 금(金)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

어가며 그 비위를 맞추려 한 셈이다. 이렇게 금(金)에 대하여 굴종적으로 비위를 맞춘 송이 금(金)에 화의하고 하였으니, 금(金)에서는 기특해서라도 상대해 주란만 그렇지 않았다. 송에서 금(金)에 사자(使者)를 보내어도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금(金)의 군사들은 이미 빼앗은 양하(兩河) 지역을 넘어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송을 공격하고 있었다. 송에서 금(金)에 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는 듯싶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金)에 접혀갔다가 도망쳐 나온 승의랑(承議郎)인 조자지(趙子砥)가 양주에 있는 고종(高宗)에게 왔다. 마침 휘종이 씨준 편지까지 가지고 왔다. 조자지는 금(金)에 포로로 가 있었기 때문에 금(金)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종은 조자지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금(金)과 화의를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물었다.

조자지의 견해는 간단하였다. 송은 금(金)과의 화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송이 화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잘 못되었다고 꼬집었다. 즉 송에서는 무기를 거두어들이면서 화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금(金)에서는 무기를 사용하면서 화의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송은 계속하여 금(金)에 끌려 다니다가 이제는 아예 송을 무시하여 상대해 주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 예로 송에서 금(金)에 사자(使者)를 보냈더니 금(金)의 대신인 유언종(劉彥宗)이 말하기를 '금국(金國)은 단지 초사(楚使)만을 받아들이지 어찌 다시 송(宋)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것이다. 초사란 초(楚)의 사자라는 말이고 초는 금(金)이 송의 휘종과 흠종을 포로로 잡아 가면서 장방장(張邦昌)을 내세워 초(楚)의 황제로 삼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장방장은 원래 북송의 대신이었는데 금(金)의 강요로 대초(大楚)의 황제로 올랐다가 금군(金軍)이 개봉(開封)에서 물러간 사이에 남송 고종에 의해 죽은 사람이다.

이러한 사정이니 이미 죽은 장방장이 보내 온 사자나 상대하겠다는 것은 바로 금(金)의 안중에는 송(宋)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남송이 아무리 금(金)과 교섭하고 사자를 보내어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한들 화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뻔한 노릇이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조자지의 말대로 송은 금(金)과 교섭하면서 염병이대화(歛兵以待和)하였던데 있지 않았을까?

즉 무기를 거두면서 화의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인 것이다.

이 말은 바로 화의(和議)를 하려하여도 어느 정도 무력을 갖추고 금(金)과 싸우면서 그 무력을 배경으로 교섭을 벌여야 그 교섭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은 비록 송금과의 교섭에서만 있었던 일일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이웃이 있다. 북한이다. 같은 언어와 문화,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가능하면 통일까지 하면 더욱 좋을 이웃이다. 그런데 70여 년 전에 3년간이나 죽고 죽이며 전쟁을 한 이후로 계속하여 적대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물론 이 적대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많은 불편함과 부담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종부리를 마주하였지만 그래도 이를 청산하고 화의에 이루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정책 가운데 헛별정책이라는 것이다. 북한을 돋고 지원하게 된다면 저들도 자연히 변화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화의가 성립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것을 시작하고도 지금은 벌써 25년은 바라보는 시점이 되었다. 이 논리에 따라서 그 사이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우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금강 산관광을 했고, 개성공단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이 현실로 나타났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최근에는 서해에서 공무원 사살 등 북한의 공격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는데, 적절히 대응한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군사합의라는 것을 해서 휴전선의 GP도 몇 군데 철수하면서 북한에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바랐지만 북한은 오히려 반대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위협하고 오히려 그 강도를 더하고 있으니 화의는 절 멀리 가 있고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북한을 더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 있다. 더 이상 무엇을 주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송금의 화의 교섭을 보면 무엇을 많이 준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을 적이면 바로 송(宋)이 금(金)에게 온갖 것을 다 주면서 화의에 목매하였던 사실(史實)이 떠오른다. 우리도 송처럼 염병이대화(歛兵以待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화의(和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권정호 서울청장년회장과 권기성 서울청장년회 고문을 비롯하여 권순용, 권태왕 부회장, 권영일 사무국장 등 서울청장년회 회장단이 1월 26일 11시 대종회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는 권문성 전 대종회 홍보부장과 권혁준(기업인) 족친도 함께 했다.

권해옥 회장은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바쁜데 불구하고 신년 인사차 대종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다.

대종회에서는 권율장군 행주대첩기념일을 국가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 2019년 1월에 청와대와 국회의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미결된 상태이다. 그래서 지난 18일 권해옥 회장, 권영익 수석부회장, 권경석 부회장, 권오덕 감사 등 대종회 회장단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에게 '권율장군 행주대첩기념일 국가행사 격상에 관한 건의서'를 권영세 선대위본부장을 방

서울청장년회장단 대종회 방문



권문성 전 대종회 홍보부장, 권태왕 서울청장년회 부회장, 권정호 서울청장년회 회장, 권기성 서울청장년회 고문, 권순용 서울청장년회 부회장, 권혁준 족친, 권영일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왼쪽부터)

문하여 전달했다. 서울청장년회에서도 많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정호 회장 등 서울청장년회장단 일행은 서울청장년회에서도 대종회에서

추진 중인 권율장군 행주대첩기념일을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역사적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태종 이방원의 후궁 의빈 권씨



사리탑

사극 태종 이방원이 주말마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고려를 지키려는 정몽주 세력과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려는 정도전 세력 간에 밀고 밀리는 각축전이 벌어지는 장면이 연출된다. 1392년 4월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 낙마하여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접한 정몽주 측은 간관 김진양 등을 중심으로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종 등을 탄핵하는 상소를 공민왕에게 올린다. 신왕조 개창세력을 일망타진하려는 책략이었다.

이로 인해 정도전 등은 유배형에 처해진다. 이때 문순공(文順公) 권홍(權弘, 1360~1446, 주밀공파, 17세)도 간관으로 참여한다. 문순공은 국재공(菊齋公) 권보(權溥)의 장남 장화공(昌和公) 권준(權準)의 증손인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화산군(花山君) 균(鈞)의 아들이다.

술 가쁘게 돌아가는 여말선조의 정치 상황에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왕조 개창세력은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격살함으로써 판세를 완전히 뒤집고 정국을 장악한다. 태조 이성계는 즉 위하면서 우현보, 이색, 성장수 등 56인이 도당(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 처음 화단을 일으켰으나 마땅히 법에 처한다고 하며 권홍 등은 장70대를 집행하고 면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라는 교서를 내린다.

권홍이 귀양을 어디로 가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2년 후 태조 3년 7월에 임금으로부터 왕씨의 복을 빌기 위해 금으로 법화경(法華經)을 쓰라는 명을 받은 장면이 나온다. 문순공은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를 잘 썼다.

서 태종의 헌릉(獻陵)과 문묘(文廟)의 비(碑)를 모두 쓸 정도로 명필이었다.

태종 2년(1402)에는 문순공 권홍의 딸이 태종의 별궁(別宮)으로 입궐한다. 태종이 권씨가 현행(賢行)이 있다하여 예를 갖추어 맞아들이려고 하니 원경왕후 민씨가 임금의 옷을 불집고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하고 "울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식도 들지 아니하므로 임금이 가례색을 파하도록 명"할 수밖에 없었다.

태종에게는 후궁이 많았다. 그 중 의빈 권씨(懿嬪 權氏, 1384~1468)는 태종이 후궁제도를 범제화한 후 첫 번째 맞은 후궁으로 정혜옹주(貞惠翁主)의 생모이다. 의빈은 태종의 총애를 받았는데 태종이 죽자(1422) 비관한 나머지 세종에게 고하지도 않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궁중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며 태종의 명복을 빌었다.

정혜옹주는 1419년 운성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에 출가했는데 혼인한지 5년 만(1424)에 세상을 버리고 만다. 허빈 권씨는 딸을 가슴에 묻고서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錦城大君, 李瑜, 1426~1457)을 친자식처럼 맡아 길렀다. 금성대군은 장성하여 정혜옹주의 사리탑을 남양주 수종사에 세운다.

처마가 두터운 옥개석의 낙수면에는 "太宗太后 / 貞惠翁主 / 舒利造塔 / 施主文化柳氏 / 錦城大君 / 正統四年己未十月日" 태종 태후 / 정혜옹주 / 사리조탑 / 시주 문학류씨 / 금성대군 / 정통 사년 기미 십월일의 명문이 읊각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세종 21년(1439)에 왕실의 발원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주인공은 태종 이방원(1367~1422)의 딸 정혜옹주(?~1424)로 확인된다. 보물 제2013호로 지정(2019년 1월 25일 지정)되었다.

의빈 권씨의 묘는 실전된 줄만 알았는데 2005년 육군화랑대연구소와 국방유적연구실이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일대에 걸쳐 있는 미군 전용 스토리아격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연천군 장남면에서 도굴된 흔적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전면에 '의빈권씨지묘'라고 기록되어 있고 후면에 성화4년(1468)이라고 읊각된 '묘표석'으로 알 수 있었다. 남편 운성부원군 박종우의 묘(경기도 화도유적 제4호)가 바라다 보이는 위치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안동권씨 '종보 보내기 운동' 전개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정신문화를 함양하는 역사적인 자료로 과거, 현재, 미래를 등대와 같이 비칠 것입니다. 대종회에서는 이 소중한 종보를 100만 족친 여러분께서 구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보 구독자 수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보를 전국적으로 확산·보급시키기 위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오니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과 '받는 사람 주소'를 대종회로 보내주시면 받은 즉시 전국 방방곡곡 안동권문의 족친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만 송금할 경우 대종회에서 대상자 선정)

이 운동은 故 권태강 대종회 고문(전 검교공파회장)께서 별세하시기 직전에 제안하시고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대종회에서는 故 권태강 고문의 유지를 받들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오니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3부까지는 부수당 30,000원. 5부부터는 부수당 20,000원(예: 10부 20만원, 50부 100만원)

▶ 입금 계좌번호 :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농협 317-0009-7471-41, 국민은행 033237-04-006941

▶ 연락처: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안동권씨 대종회